

日진보언론·이시바, 與 압승 경계… “백지 위임 아니다”

아사히·마이니치 “역지로 정책 추진하면 사회분단 조장”

보수 요미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정책 과감히 시행해야”

일본 집권 자민당이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창당 이후 최대 의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둔 것과 관련해 진보 성향 언론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을 향해 일방적 국정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체 465석 중 3분의 2가 넘는 316석을 휩쓸었다. 의석수를 기존 198석에서 60% 정도 늘렸고, 지역구 289곳 중 249곳에서 승리했다.

1945년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한 정당이 중의원(하원)에서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점유했던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도조 히데키 내각 시절이던 1942년 선거에서 대정익찬회 추천 후보가 466석 중 381석을 얻었지만, 당시는 태평양전쟁 중이라는 비정상 상황이었기에 자민당의 이번 승리는 ‘역사적 대승’으로 평가된다.

다카이치 내각에 비판적 견해를 내왔던 아사히신문은 9일 사설에서 “우와 색이 강한 다카이치 정권에 ‘중도’를 내걸고 도전한 중도개혁 연합이 참패했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국론을 양분할 정책’ 실현에 돌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적인 전망을 했다.

아사히는 “선거 승리는 유권자의 ‘백지

위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론을 양분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합의 형성에 힘쓰는 것이 지도자의 책무이며, 역지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사회 분단을 조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유권자에게 충분한 판단 재료를 제시했다고 할 수 없다”며 강경 보수 성향 일본유신회와 새로운 연정 수립 등을 계기로 ‘중요한 정책 전환’ 필요성에 관해 물었지만 그 내용은 모호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논쟁을 야기할 수 있는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과 스파이 방지법 등에 대해 언급을 자제했지만, 향후 유신회와 연정 수립 시 합의했던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무기 수출 규제 완화, 국기 훼손죄 제정, 옛 군대 계급 호칭 부활, 군수 공장 일부 국영화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가 개헌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한 뒤 “국론을 양분하는 주제만 있는데,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경계감을 나타냈다.

마이니치신문도 총선 관련 사실에서 “개별 정책 논쟁을 하기보다 인가 투표로 물고 가 ‘돌풍’을 일으키는 데는 성공했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 기반이 비

보수·진보의 입장 비교

‘역사적 대승’ 의미
·전후(1945년 이후) 첫 사례
·비교 사례
·1942년 **도조 내각: 381석**
·전시 체제라는 특수 상황
·이번 승리는 **정상 선거에서의 최대 권력 집중**

다카이치 사나에 vs 이시바 시게루

다카이치 사나에
·압승 = 강력한 국민 신임
·속도감 있는 국정 추진 강조
·헌법 9조 개정 추진 의지
·방위력 강화·안보 전환 강조
·무기 수출 규제 완화 검토

이시바 시게루
·압승 ≠ 백지 위임
·의석 수보다 실적이 중요
·개헌·안보 정책은 신중 접근
·국론 분열 가능성 우려
·비핵 3원칙 재검토에 부정적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자민당 압승과 관련해 “백지 위임과는 다르다”며 일침을 가했다.

약적으로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아직 정권의 실적은 충분하지 않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언급한 국론을 양분할 정책은 평화 국가인 일본의 국가 형태에 관한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의원에서는 여당이 주도권을 잡게 됐지만, 참의원(상원)은 여당이 과반에 약간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독단에 빠지던 이미지에 기인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 전임자이자 현 내각에 호의적이지 않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도 자민당 압승과 관련해 “백지 위임과는 다



르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산인쥬오TV에 “중요한 것은 실적에 대한 평가이며, 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의석을 얻었다고 해서 뭐든 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해산으로 당내에서도 정책이 논의되지 않았다”며 소비세 감세 추진 시 대체 재원 확보, 무기 수출 규제 완화, 핵무기 보유·제조·반입을 금지한 ‘비핵 3원칙’ 재검토에 대한 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수 성향 최대 일간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압승은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기대치’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 기대가 시들지 않도록 총리는 거만해지지 말고 정권 운영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신문은 “총리는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 문서 개정, 국가정보국 창설 등에 의욕을 보였다”며 “국내외 불안정 요인이 산적한 가운데에서도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는 정책을 과감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경 보수 성향 산케이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신임을 얻었다”며 방위산업 육성, 방위비 증액, 정보 수집 능력 강화, 개헌 논의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글·사진=연합뉴스

“수퍼볼 30초 광고 117억” AI 기업들, 광고판 점령

올해 미국프로풋볼(NFL) 수퍼볼(첸파인 결정전)에는 인공지능(AI) 기업들과 빅테크가 대거 광고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매체 CNBC에 따르면 구글, 아마존, 메타, 오픈AI, 엔트로픽 등 빅테크와 주요 AI 기업은 물론 ‘젠스파크’, ‘웍스(Wix)’ 등 중소 AI 기업들도 올해 수퍼볼에 광고를 했다.

CNBC는 “전례 없는” 수의 AI 기업들이 수퍼볼 광고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CNBC는 “AI 기업들이 올해 수퍼볼 광고에 많은 돈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자동차 업체 등 전통적인 기업들의 광고 비중이 줄어든 가운데 AI 기업 등 기술 기업들이 광고 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전했다.

광고 효과 분석 업체 아이스팟에 따르면 2012년만 해도 수퍼볼 광고 시간의 40%를 차지했던 자동차 업체들의 비중은 지난해에는 7%로까지 급감했다. 앞서 CNBC는 올해 수퍼볼 경기 중 광고를 내보낼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업체는 제너럴모터스(GM)와 도요타, 폭스바겐 등 3곳뿐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CNBC에 따르면 올해 수퍼볼 30초짜리 광고는 평균 800만 달러(약 117억 원)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으며 완판됐다. 일부 광고는 1000만 달러가 넘는 가격에 팔렸다고 CNBC는 전했다.

올해 수퍼볼 광고를 하지 않기로 한 일부 자동차 업체들은 비용 문제로 광고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푸에르토리코에서 팬들이 슈퍼볼을 시청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100만 달러 내면 트럼프 대면… 美 건국 250주년 기부 행사 논란

200주년행사 때보다 “더 노골적” 일각선 ‘기념행사 정치화’ 우려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행사가 때아닌 논란에 휘말렸다. 주최 측이 100만 달러(14억6000만 원)를 내면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을 볼 수 있다며 ‘트럼프 면접권’ 판매를 광고하고 나서면서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 모금 책임자가 ‘프리티덤 250’을 위한 민간 기부금을 모으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가 입수한 ‘프리티덤 250’의 홍보자료에 따르면 주최 측은 기부자들을 위해 ‘맞춤형 패키지’를 배포하고 있다.

‘프리티덤 250’은 이동식 박물관인 ‘프리티덤 트럭’, 리셉션, 카 레이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세부 내용에 따르면 100만 달러 이상 기부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프리티덤 250 감사 리셉션’에 초대받아 대통령과 함께 사진 촬영할 기회를 얻는다. 250만 달러 이상 기부자는 7월 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서 연설할 수 있다.

‘프리티덤 250’은 국립공원재단 내부에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트럼프 측이 좌지우지하는 회사로 분류된다. 그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국립공원재단 이사로 다수 임명됐기 때문이다.

국가 기념행사를 정치화하거나 기업 자금을 모으는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76년

건국 200주년 당시에도 있었다.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은 기획 위원회를 정치적 측근들로 채운 데다가 기업들의 후원을 지나치게 많이 받아 비판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닉슨 때보다 더하다는 지적이다. 아메리칸대 역사학과의 림자 파블로프스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닉슨 전 대통령보다 “더 노골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저항은 덜 받으면서”(in a more overt way, and with less

pushback) 기념행사를 정치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프리덤 250의 공격적인 행보는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 주관 위원회인 ‘아메리카 250’의 우려도 낳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메리카 250은 의회가 승인한 독립 비영리 단체다.

민주당 보니 왓슨 쿨먼 하원의원은 의회가 배정한 세금이 ‘아메리카 250’이 아닌 ‘프리티덤 250’으로 전용될 것을 우려했다. 그는 “한쪽은 모든 미국인의 이야기를 알리려고 노력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대통령의 자존심을 세워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이미 약 1000만 달러의 세금이 ‘아메리카 250’에서 ‘프리티덤 250’으로 전용됐다고 NYT는 전했다.



자연이 준 선물 정선 약도라지!

국내산 청정 강원도 약도라지 100%

자연에서 나온 약도라지를 정성을 다해 다듬은 뒤, 저온에서 72시간 추출하여 한 병에 가득 담았습니다.



웃이랑에서 정성과 고민을 다해 만든 정선 자연순 약도라지 진액고는 강원도 산 속 깊은 곳의 순수한 자연에서 자란 자연산 약도라지만을 사용하여 제대로 만든 제품입니다.

無 색소!
無 설탕!
無 첨가제!



오래된 도라지는 산삼보다 좋습니다!

라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도라지에는 사포닌과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 등 각종 영양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런 약도라지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정선 자연순 약도라지 진액고는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속에서 인고의 세월을 딛고 자란 3년 이상된 약도라지만을 엄선, 직접 슬라이스하여 통째로 72시간동안 진하게 달여 완성시켰습니다. 게다가 색소, 방부제 첨가가 없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으며, 도라지 특유의 쌉싸름한 맛을 줄이기 위해 국내산 쌀조청을 일부 첨가하여 도라지 특유의 아린 맛을 순하게 배합하였습니다. 거기에 합성 감미료, 착향료, 설탕, 색소가 일절 첨부되지 않은 원료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 더 진한 약도라지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정선 약도라지 진액고 이런 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 평소 목이 자주 칼칼거리어서 불편하신 분 ·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 · 황사, 미세먼지, 배기가스, 흡연 등 나쁜 공기에 시달리시는 분 · 선생님, 학원강사 등 목을 많이 쓰시는 분

주문전화 : **1588-6232** 입금계좌 : 농협 301-0280-1454-01 주식회사 웃가네 **· 무료배송 · 신용카드 · 무이자 할인혜택**

· 제조원 : 농협회사법인(주)글로벌금산진생 / 총판 금산군 금산을 하영치길 29-16 · 유통전문판매원 : (여웃이랑 /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62길1, 남신빌딩 4F